

##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한약 투여 후 호전된 일과성 열감 치험 1례

하현이\* 이지환\* 이성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65-6 노영범 부천한의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8-2번지 정인한의원\*\*

### A Case Report of Hot Flashes Treated by Herbal Medicine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

Ha Hyun-ye<sup>e</sup>\* Ji-Hwan Lee\* Sung-Jun Lee\*\*

Rho-Young-Bum Bucheon Korean medicine clinic, 565-6, Sang 2-dong, Wonmi-gu, Bucheon,  
Korea\*

Jung-In Oriental medical clinic, 638-2,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case is to report the effects of Baekho-tang based on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Methods :**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Gwoleum-byung(厥陰病). Visual analogue scale was used to check the symptoms while the patient taking herbal medicine Baekho-tang for 12 weeks.

**Results :** After taking Baekho-tang, Visual analogue scale in hot flashes markedly decreased 9 to 1.

**Conclusions :** This paper shows an efficient result of using Baekho-tang based on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Further studies should be needed to validate the effects of Baekho-tang.

**Key words :** Hot flashes, Baekho-tang, *Shanghanlun*, herb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Ha Hyun-ye. Rho-Young-Bum Bucheon Korean medicine clinic, 565-6, Sang 2-dong, Wonmi-gu, Bucheon-si, Korea. E-mail : hhyee0819@naver.com

· Received : 2015/12/13 · Revised : 2015/12/23 · Accepted : 2015/12/25

## 서론

일과성 열감(Hot-flashes)은 얼굴과 상체의 따뜻한 느낌으로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지기도 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열이 나며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증과 유사한 질환이다<sup>1)</sup>. 증상이 심하면 목, 가슴 부위까지도 붉어지며 흔히 불안, 심계항진, 발한, 오한 등 증상과 동반되기도 하며<sup>1)</sup>, 증상의 빈도는 하루에 수차례에서 시간당 1회, 지속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까지 환자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일과성 열감은 피부색이 붉게 변하거나 땀을 흘리는 등 얼굴에 드러나는 증상이므로 환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고 대인기피증,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sup>2,3)</sup>.

일과성 열감이나 안면홍조에 관련한 기존 연구는 여성의 폐경기 및 갱년기 증후군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증상으로서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과성 열감이나 특히 남성의 경우에 대한 연구보고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하루에 수차례, 30분 이상 지속되는 상열감과 이에 동반된 땀 증상을 호소하는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sup>4)</sup>에 근거, 白虎湯을 처방한 후 주소증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증례

1. 환자명 : 최○○

### 2. 환자 기본정보

남성/ 37세 / 172cm / 63kg / 미혼 / 스포츠  
마사지사

3. 주소증(C/C) : 상열감과 땀

4. 발병일(O/S) : 1996년 8월

### 5. 현병력(P/I)

1) 1996년 18세 때부터 더운 환경에 놓이거나 몸을 많이 움직일 때, 모르는 사람을 마주 대할 때 얼굴 쪽으로 갑자기 열이 오르고 땀이 나기 시작하여 30분 정도 지속됨.

2) 주소증과 관련된 만성 증상으로 몸살기운, 장염(설사), 불명 열이 항상 함께 찾아오며 그때는 열이 더 자주 오르고 땀이 평소보다 더 많이 흐름.

3) 2013년 경 3개월 동안 마사지 일과로 잦은 열감과 땀, 감기기운으로 종합병원에 입원치료 하였으나, 입원 기간 1달 동안의 각종 검사 후에도 열의 원인을 찾지 못함.

6.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7. 과거력

2007년 역류성 식도염  
2008년 편도선 절제술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양호

- 2) 消化: 소화기능 좋지 않고 자주 체함.
- 3) 口部: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
- 4) 汗出: 얼굴, 머리, 가슴에 땀이 많이

남.

- 5) 大便: 1일 2회, 설사 경향.
- 6) 小便: 특이사항 없음.
- 7) 寒熱: 더위 탐, 얼굴로 열이 잘 오름.
- 8) 頭面: 특이사항 없음.
- 9) 呼吸: 감기에 잘 걸림.
- 10) 胸部: 종종 가슴이 답답함.
- 11) 腹部: 특이사항 없음.
- 12) 睡眠: 양호
- 13) 身體: 身體痛이 있음.
- 14) 性慾: 특이사항 없음.

## 10. 진단 및 평가 방법

###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 (1) 臨床所見

① 1996년부터 시작된 잦은 상열감과 이에 동반되는 땀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② 잦은 설사, 감기, 身體痛을 호소함.

#### (2) 辨病診斷: ㉔厥陰之爲病

① 消渴: 평소 몸 상태가 나빠지면 살이 쉽게 빠진다는 것을 환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살이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항상 음식을 챙겨먹으려 함.

② 飢而不欲食, 食則吐: 몸 상태가 악화될 때는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고, 빈속에서도 잦은 소화기 불편함을 호소.

③ 下之利不止: 고등학교 시절부터 몸 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설사가 더 심해짐. 특히

주증상인 상열감과 땀의 정도가 설사가 심해짐에 따라 함께 악화됨.

#### (3) 條文診斷: 白虎湯\*

① 傷寒-脈陰陽俱緊\*\*: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나 긴장할 때 열감이 심해짐.

② 脈滑: 25세 때부터 약 13년간 마사지 일을 해오면서 체력적 피로가 극심함. 쉽게 지치고 힘이 없음.

③ 脈厥: 직업상 몸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만들어 얼굴로 뜨는 열을 심화시킴.

2) 치료 평가 도구: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를 수치화한 Visual analogue scale(VAS)<sup>5)</sup>을 사용 하였다. 가장 불편한 정도를 10으로 하고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을 0으로 한다.

## 11. 치료적 증재

### 1) 한약 투여

白虎湯을 90일간 투약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약재 구성 및 복용 용량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 2) 생활지도

설사를 유발시키는 과식을 자제하고 체력적 과로를 피하도록 하였다.

##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2015년 9월 - 12월

2) 경과

(1) 초진일: VAS 측정 시 상열감의 정도는 9, 열감과 항상 동반되는 땀은 9로 표시함.

\* ㉔350. 傷寒, 脈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主之.

\*\* ㉔3. 大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

- (2) 2주 후 재진 (白虎湯 복용 15일)
  - ① 상열감이 VAS 9 → 7로 감소.
  - ② 땀이 VAS 9 → 8로 감소.
  - ③ 항상 느껴오던 몸살기운은 아직 비슷함.
  - ④ 밤마다 맥주와 치킨, 순대 등을 많이 먹고 자서 소화 상태가 좋지 않음.
- (3) 4주 후 재진 (白虎湯 복용 30일)
  - ① 상열감이 VAS 9 → 5로 감소.
  - ② 땀이 VAS 9 → 5로 감소.
  - ③ 밤에 야식을 먹고 자는 것이 설사를 더욱 유발시키며, 설사가 심해지면 열감이 더 오르고 땀도 더 나는 패턴 관찰됨.
- (4) 6주 후 재진 (白虎湯 복용 45일)
  - ① 상열감이 VAS 9 → 3으로 감소.
  - ② 땀이 VAS 9 → 3으로 감소.
  - ③ 변 상태가 설사에서 무른 변으로 변화.
- (5) 10주 후 재진 (白虎湯 복용 75일)
  - ① 상열감이 VAS 9 → 2으로 감소.
  - ② 땀이 VAS 9 → 2으로 감소.
  - ③ 무른 변에서 굳은 변으로 변화.
  - ④ 팔과 다리에 이전보다 힘이 생겨 몸을 지탱하기 수월해짐.
  - ⑤ 평소 지속되던 감기기운과 身體痛 줄어들어 요즘은 크게 불편함이 없음.
- (6) 12주 후 재진 (白虎湯 복용 90일)
  - ① 상열감이 VAS 9 → 1로 감소.
  - ② 땀이 VAS 9 → 1로 감소.
  - ③ 굳은 변 유지.
  - ④ 전반적 신체상태 양호.

Table 1. Composition of Baekho-tang<sup>6)</sup>

Herbal name	Daily dose(g)
知母 Anemarrhenae Rhizoma	18
石膏 Gypsum Fibrosum	48
甘草 Glycyrrhizae Radix	6
粳米 Oryzae Semen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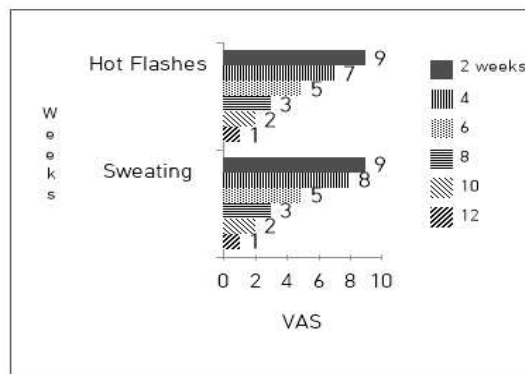


Fig. 1. Change in Hot Flashes and Sweating

## 고 찰

『傷寒論』은 환자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병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병리적 패턴을 六病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임상관찰서이다. 辨病診斷體系<sup>4)</sup>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이 六病 提綱과 條文의 병리작용 함께 변화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진단하고 처방을 선정하는 방식의 진단 시스템이다.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는 六病과 條文 진단을 근거로 처방을 투여한 후 치료경과를 확인함에 있어서, 주소증을 비롯하여 해당 육병 제강과 조문 증상 개선 및 변화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상열감과 땀 증상이 발생할 무렵인 중학교 때부터 주소증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厥陰病 제강의 증상들이 작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육병을 厥陰病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350조 傷寒, 脈滑而厥者, 裏有熱也<sup>7)</sup>의 조문에 언급된 증상들과 임상에서 관찰되는 환자의 상태가 부합하며, 이 증상들이 주소증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조문을 선정하였다.

『傷寒論』에서의 脈<sup>8)</sup>은 ‘인체의 움직임 혹은 행동’을 의미하므로 본 증례의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滑’는 일반적으로 ‘미끄럽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脈滑의 개념을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신체 중심이 단단하게 잡히지 않고 행동이 미끄러지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康平傷寒論』에서 白虎湯은 大陽病 結胸편 176조, 三陽合病 219조, 그리고 厥陰病편 350조에 등장<sup>7)</sup>하는데, 大陽病 結胸편 176조

와 厥陰病 350조 두 조문에 모두 ‘滑’이 존재한다. 향후 白虎湯 처방의 치료 대상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한 향미차원의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처방과 연결 지어 滑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학에서 ‘厥’은 일반적으로 邪氣가 逆行하는 현상이나 正氣가 斷絶되는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冷症 혹은 일시적으로 氣絶하는 병증으로 설명한다<sup>9)</sup>. 한편, ‘厥’은 ‘앞으로 숙이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脈을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sup>8)</sup>로 생각하였을 때 ‘몸을 숙이는 행위(脈厥)’라는 행동적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 추론하였다. 본 증례 환자의 경우, 25세 때부터 10년 이상 스포츠 마사지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 상 자연스레 몸을 숙이는 행위를 만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얼굴 쪽으로의 열감 자연스럽게 유발하므로, 脈厥을 주 증상인 상부 열감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약 12주 동안 白虎湯을 복용 과정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수치화한 Visual Analogue Scale(VAS)을 활용하여 2주마다 주소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열감과 땀 증상은 처음에 VAS 9에서 12주가 경과한 후 VAS 1로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열감이 감소되면서 평소에 항상 느껴오던 감기기운도 점점 없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환자는 주소증 발생 당시인 중학교 시절부터 하루 서너 차례 혹은 컨디션이 저하되면 더 잦은 지속적인 설사(下之利不止) 증상이 있었는데, 치료과정에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변이 굳어지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평

소 힘이 없어 느리게 걷던 걸음걸이가 힘이 생겨 활기찬 걸음걸이로 변화한 것은, 환자가 '37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환자는 설사를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수록 주소증인 열과 땀을 심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직접경험한 후, 스스로 야식 먹는 습관을 조절하여 증상이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소증 개선 뿐 아니라 환자의 신체 전반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厥陰病 제강과 조문에 기재된 脉, 滑, 厥에 대하여 고문자적 의미와 임상에서 관찰되어 온 것을 토대로 그 의미를 적용하였다. 비록 기존의 『傷寒論』 해석과 비교하여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겠으나, 문자적 의미와 임상 관찰을 근거로 하였다는 점과 실제 환자에게서 확인되는 주요 증상들과도 부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본 증례 1례에만 해당되는 것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의 과학적 검증방식을 통한 증례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결 론

1. 본 증례는 『傷寒論』을 바탕으로 한 辨病診斷體系를 통해 일과성 열감을 주소로 하는 환자에게 厥陰病 白虎湯을 투여한 증례로, 약 12주 동안의 한약 투여 결과 상열감 및 동반된 땀 증상의 불편감이 VAS 9에

서 1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 白虎湯 복용 후 주소증인 일과성 열감 뿐 아니라 평소에 불편함을 느껴왔던 설사, 身體痛 등 제반 증상들도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

## 참고문헌

1. Kim DI, Kim SW, Kim JW, Kim CW, Yoon MH, Lee TK, et al. Korean Traditional Medicine Gynecology & Obstetrics. Seoul:Jeong Dam. 2001:218-234.
2. Heather G. Miller. MFS. Rose Maria Li. Measuring Hot Flashes: Summary of 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orkshop. Mayo Clinic Proceedings:Jun 2004:79.
3. Mohyi D, Tabassi K, Simon J. Differential diagnosis of hot flashes. Maturitas. 1997;27(3):203-14.
4. 이성준, 임재은. 傷寒論 六經과 條文에 근거한 診斷體系 및 臨床運用. 서울:大韓傷寒金匱醫學會 出版局. 2013.
5. Aitken RC. Measurement of feelings using visual analogue scales. Proc. R. Soc. Med. 1969;62(10):989-93.
6. 이승인. 傷寒論 比較. 서울:大韓傷寒金匱醫學會 出版局. 2015.
7. 張仲景. 康平傷寒論. 서울:大韓傷寒金匱醫學會 出版局. 2013.
8. 노영범, 오지현, 류희창. 『傷寒論』 脈의 古文字學的 解釋과 臨床運用을 통한 올바른 이해, 서울:大韓傷寒金匱醫學會 出版局. 2013.
9. 장우창. "상한론(傷寒論)"의 厥(厥)과 厥음병(厥陰病)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21(2):87-99.